"미워도 다시한번" "이번엔 바꿔보자"

■ 막판 표심잡기 치열한 유세전

접전지역 지도부·국회의원 총동원
무소속 후보들도 합동 유세 '맞불'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정당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무소속 후보들은 "정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은 민주당과 차별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초 접전지역으로 분류된 광주 서구와 남구, 전남 순천·광양·나주·화순·강진·신안 등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선거 막판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다.

◇**광주시장**=각 후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오만함은 광주의 희망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가 정치도시에서 경제도시, 닫힌 도시가 아니라 미래로 열린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주지역 후보들과 지지자들로 구성된 '북풍(北風) 저지 남풍(南風) 유세단'과 함께 유세를 벌이고 "이명박 정권의 북풍에 맞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줘선 안 되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모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이날 강기갑 대표와 대학생 유세단과 함께 유세를 통해 "4년 후 민주당을 대신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이 어디인지 생각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소란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민주당은 2012년 정권 재창출이 민주당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진보신당 후보에게 찍는 한 표는 복지를 선택하는 한 표이고 차별이 아닌 평등을 선택하는 한 표"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평화민주당 조홍규 후보도 TV 유세와 거리 유세를 통해 호남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전남지사**=각 후보들은 전남 곳곳을 돌며 막바지 지지를 호소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전략지역인 동부권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여수지역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남 유권자들이 정당에 관계없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무안과 함평 등에서 지원유세를 벌여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들과 호흡을 맞춰 도정을 이끌어가고 싶다"며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노당 박웅두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지역에서 근로자들과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고, 평화민주당 김경재 후보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순천과 광양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을 벌였다.

◇**초 접전지역 유세전도 치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무소속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최영호 후보 사무실에서 선대위를 개최한 뒤 남구 푸른 길 공원에서 마지막 '민주당 후보자 합동유세'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광주시당과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각 구청장·지방의원 후보들이 참여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맞서 황일봉 무소속 남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남구 무소속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도 이날 오후 봉선 공원에서 합동 유세를 벌이며 '맞불'을 지폈다. 서구에서도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연이틀 '촛불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전주언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도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동영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순천과 여수·광양·곡성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벌였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광주 서구와 전남 장성·나주·강진·해남·신안·진도 등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가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율 높으면 민주 유리
단체장 출신 무소속 불리

■ 당락 최대변수, 투표율

6·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선거 당일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투표율은 광주 46.3%, 전남 64.3%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지고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어 다소나마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6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와 북풍 등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쟁점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방정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의 힘에 의지해야 할 후보가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현직 기초단체장 출신인 무소속 후보와 맞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도권의 북풍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 부동층에 숨어있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조직표를 많이 갖고 있는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에게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주 남구는 이번 선거에서 50%를 넘어서는 투표율이 나올 경우 민주당 최영호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으나 45% 수준까지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불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69.6%의 투표율을 기록한 나주시장 선거의 경우 70% 이상까지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민주당 임성훈 후보가 유리하나 65%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조직이 강한 무소속 주향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광주 남구와 서구, 나주·장성·신안 등 민주당 후보들이 현직 단체장과 맞서고 있는 광주·전남 초박빙 선거지역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구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표 담당 사무원에게 개표 과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투·개표 2만여명 투입

자정쯤 당락 윤곽…새벽 3~4시 개표 완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투·개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선거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다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선출하는 1인8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광주·전남 투·개표 작업에 사상 최대의 규모인 2만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31일 개표소 5곳을 설치한 뒤 1일 오후 6시까지 345개 투표소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선관위는 또 선거 당일 3850명의 투표관리 인력과 1869명의 개표관리 인력을 투·개표소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선관위도 개표소 22개·투표소 870개를 1일까지 설치하는 한편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 870명과 투표사무원 8307명 등 투표관리 인력 9177명과 개표관리 인력 566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투표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는 경합지역이 아닌 경우 자정께 윤곽이 드러나고, 개표작업은 신안과 여수 등 섬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3일 새벽 3~4시께 마감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투표율은 투표개시 1시간 후인 오전 7시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까지는 2시간마다, 이후에는 1시간마다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개되며, 개표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1인당 4장씩 2번에 걸쳐 총 8번의 기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지지할 후보자와 정당을 미리 결정해서 투표소에 갈 것"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박준영 후보 하루 평균 320km 이동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6·2 지방선거 운동기간 하루 평균 320km를 이동하며 유세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박준영 후보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3월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2개월여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전남 22개 시·군의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기간 박 후보가 탑승한 선거운동 차량은 하루 평균 319km씩 67일 동안 무려 2만1373km를 이동한 셈이다고 박 후보측은 밝혔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까지 방문하며 밑바닥 민심을 챙겼고 하루 평균 4~5개 시군에서 7~8차례 유세를 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상인회 지지 선언 진위 논쟁

광주지역 재래시장 상인회가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정 후보의 발언을 놓고 진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측 김승남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는 지난 28일 저녁 방송 토론회에서 '광주 17개 재래시장 상인회가 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언급했는데, 상인회에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 후보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사죄하고, 정치신인답게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에 동참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용화 후보 측은 "애초 상인회가 기자회견 등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문제가 있어 비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완준 "여성 1000명 취업 알선"

무소속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는 지난달 31일 "화순지역 30~40대 여성 1000명을 간병인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후보는 "1인당 교육비는 40만원 정도로 이미 편성된 여성 직업교육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성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 자격증 취득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충곤 "단임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구충곤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수에 당선되면 화순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차기 군수선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화순의 불행한 군수 구속의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바라는 화순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수 단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